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2. 09 | Vol. 220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임진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지난 7월 14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9월 1일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불자들에게서는 모두 수회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육재 8월 25일(음. 7월 8일)
막재 9월 1일(음. 7월 15일)
재일 매주 토요일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 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 의** 법왕사 766-3747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04 깨침의 향기
가정과 자식을 굳건하게 지키는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하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백고좌 법회를 열면서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생각을 잘 다스리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 본원스님
- 14 용두마을
월애삼매(月愛三昧) · 묘도스님
- 16 경전이야기
경율론 삼장(經律論 三藏)
- 20 불교상징의 세계
우주의 중심, 수미산 · 편집실
- 24 명찰순례
월출산이 품은 천년고찰, 도갑사
- 28 법왕소식
- 30 법왕게시판
- 33 해오름소식
- 34 해오름게시판

가정과 자식을 굳건하게 지키는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하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어머니는 우리를 따뜻하게 비쳐주는 태양이요,
길을 가르쳐 주는 장승이요, 언제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효의 중심은 경로(敬老)사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심히 보면 경로가 아니라 오히려 천로(賤老)입니다. 한마디로 늙으면 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로는 다행입니다. 기로(棄老)도 흔하다는 것입니다. 기로가 무엇입니까? ‘버릴 기’ 즉 버려지는 노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경(恭敬)은 받지 못하더라도 버림을 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정이 해체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성의 의무이고 도리입니다. 부모님 잘 모시고 자식 밥 잘 챙겨주면 가정은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모인 국가도 자연스럽게 부강할 것입니다.

남녀의 역할은 다릅니다. 여자가 밥을 잘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기정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방면의 전문가가 해야 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생긴 이래 수천년 동안 이어져 온 자연의 이치입니다.

요즘 일부 여성은 ‘현모양처는 여성의 적이다’며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희생을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덩달아 가정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義務)를 제대로 수행(遂行)해야 권리(權利)가 생기는 것인데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 반란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책임의 반은 어머니에게 있고 나머지 반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는 나라의 근간인 가정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해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여성들이

돈을 벌려고 가정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아동복지니 뭐니 하면서 여성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정에 주어야 합니다. 그럼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가정도 든든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자비(慈悲)의 손이고 어머니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점잖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동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눈물겨운 장면은 바로 자녀를 위해 일편단심 헌신하는 어머니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의 눈시울은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몸

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나는 사람은 어머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나는 스승도 어머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첫 입맞춤을 한 사람도 바로 어머님입니다. 기쁘고 감격했을 때 부르는 이름도 어머님이고 위기에 처했을 때 찾는 사람도 어머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도 어머님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우리의 학교이고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의 교실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의 선생이고 어머니의 입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율곡 이이의 뛰어난 인격의 배후에는 신사임당이 계셨고, 맹자의 뒤에는 맹모의 현명한 가르침이 있었고, 칸트의 깊은 철학의 배후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계셨습

니다.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한 여자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녀의 생명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생기고, 자녀를 위한 한량없는 사랑이 생기고, 자녀를 위한 씩씩한 용기가 생기고, 자녀를 위한 뜨거운 헌신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살아가는 것을, 용서(容恕)하는 것을, 인내(忍耐)하는 것을, 수고하는 것을, 감사(感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위대한 단어는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는 아름다운 것, 온화한 것, 부드러운 것, 흐뭇한 것, 너그러운 것, 착한 것, 참된 것, 거룩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幸福)합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고 작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쓰고 철학자는 어머니의 정신을 외치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는, 가정을 위하는 보살(菩薩)입니다. 나라의 근간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잘 하는 사람이 결국 나라를 위한 충신(忠臣)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백고좌 법회를 열면서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 ● 유난히 뜨거웠던 폭염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는 듯,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새벽녘에는 흠이불 자락을 끌어당기게 합니다. 그리고 보니 벌써 입추, 처서도 지나 완전한 초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올해도 빠짐없이 백고좌법회를 준비하였습니다. 100일 동안 100분의 큰스님을 모시고 법석을 열어 심오하고 광대한 불교의 세계로 불자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백고좌법회는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고승대덕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어느 스님을 모실지, 어느 스님께서 법문을 허락하실



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소송을 비롯해 총무스님, 종무소 전 직원이 스님들께 연락을 취하고 법문을 부탁해 어렵게 허락을 받아 100일 동안의 법회 계획을 세웁니다.

● ● 법우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절은 기도하고 수행하는 곳이며, 불자는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불퇴전의 각오로 불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절은 부처님의 형상이 있고, 부처님의 법이 있고,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스님이 아닌 불자들도 절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송은 포교의 원력을 세운 주지

로서, 단 한 분의 불자에게라도 부처님법을 더 알려 드리기를 위해 더 많은 설법회를 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이 바로 백고좌법회이고, 20여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혹은 다양한 주제를 정해 100일 동안 길게 법회를 열면 불자들이 언제나 참석해서 법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기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백고좌법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백고좌법회는 이미 경전에 근거가 있는 매우 유서깊은 법석입니다. 백고좌법회는 신라, 고려시대에 크게 성행했던 법회입니다. 특히 국난이 있을 때 불법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이 의지했던 법회가 바로 백고좌법회였습니다. 그런 법회도 불교가 탄압받고 위축되었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만 맥이 끊어져 6백여년 동안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상 사라져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팎 사정이 순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고 변동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안으로는 지역간, 세

대간, 계층간으로 갈라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에 한반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입니다. 더구나 한반도마저 두 동강이 난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합심해도 어려운 판국에 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국력 낭비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나라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저는 백고좌법회의 주제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원’, ‘소통과 화합’으로 정해 좀 더 목적의식을 가진 법회로 이끌어가고자 애를 써 왔습니다.

●● 법왕사 백고좌법회가 올해로 23회째라면 벌써 범문하신 스님만 해도 연 2천여분이나 됩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는 또 얼마이겠습니까?

백고좌법회를 준비하는 법왕사의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수행과 공부에 큰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나라 국운의 융성은 물론 세계평화까지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 다스리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본원스님 / 토굴정진중

“ 정사(正思)는 생각(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고자,
자기 내면(內面)의 다스림을 전제로 한 공은 정신질서이다. ”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면, 쉽게 집착(執着)에 빠지고 탐착(貪着)하게 된다. 그저 어딘가에 빌붙어 그것에 의지하며 안주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는 오욕을 좇아 타성의 늪에 몸을 맡긴 채 사는 꼴이다. 이는 해묵은 관습과 잘못된 인식의 혼돈이 저지르는 자기중심적인 착각이다.

가장 큰 착각은 ‘인류의 큰 스승이시자, 구원의 실상이며, 만 중

생의 귀의처요, 이 나라 민족종교인 불교를 단순히 선택의 종교로 아는 것'이다. 이 중대한 착각의 오류는 그 사람의 생애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탁한 전세(前世)의 업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윤회는 쓰라린 너울 속에서 부침하며, 보잘것없는 질편한 욕락에 젖어 마음 받은 잡초로 무성한 황무지가 된다.

불법은 해탈의 길

범부중생은 그날 그날 살면서 '고통스런 생사에욕의 강물을 말리고 번뇌로 치성한 악업을 씻어 고해(苦海)의 바다를 건네주는 대자유를 향한 해탈의 길, 불법(佛法)'을 두고 "믿든 안 믿든, 닦든 안 닦든, 실천 수행하든 안 하든 그것은 신앙의 자유가 가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며 무지(無知)에 찌들대로 찌들고 아만(我慢)으로 가득 찬 망령된 생각과 헛소리를 하곤 한다.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소견이다. 예를 들어 고명한 의사가 사경

을 해매는 위중한 병자의 병세를 살핀 뒤 병이 낫도록 처방을 해주었다고 치자. 그 환자는 그 약을 먹기만 하면 중병일지라도 차츰 병세가 호전될 것이다. 그런데 약이 쓰다며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노릇인가? 마찬가지로 참삶의 길을 저버린 채 그릇된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참으로 어리석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탐진치(貪瞋痴)라는 맹독에 걸려 병세가 심각한 사람이 처방전을 마다한 채 어둠의 미망을 해매는 중생의 병통이 이와 같은 것이다.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행복의 관건'이라고 하신 부처님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행복 또한 밖에서 찾지 말고 이미 다 갖추진 내 안에서 구하고 찾으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행복의 열쇠는 다름 아닌 스스로 생각을 잘 다스리는데서 주어지고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의 생각이란 대체 무엇이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까? 생각의 주체는 누구일까? 대체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기에 '행복도 생각을 잘 다스리는 데서 오는 것' 이라고 하였을까?

한자 '생각 사(思)를 보면 '밭 전(田)'에 '마음 심(心)'이 합성된 글자이다. 농경시대나 오늘날이나 자산(資産) 가치로는 논밭과 임야가 으뜸이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마음 쓰이고 관심을 두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이 표의문자 '생각 할 사(思)'다.

즉 객관의 대상이자 사물인 전답(田畓)을 두고 주관적 생각(마음)을 개입시켜 헤아리고 사랑(思量)한다는 의미이다. '생각 사(思)'가 지닌 큰 뜻은, 인간은 생각의 동물인 만큼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듯 오로지 자기 생각에 취하여 가고오고, 옳다 그르다 시비하며, 생각에 따라 주의·주장하고, 생각에 따라 말하고 침묵하며, 생각에 따라 기분이 좋고 혹은 기분 나쁜 까닭에 생각하기에 따라 행복도 느끼고 불행

도 느끼는 것이다.

그런 고로 생각(마음)이 없으면 대상이 눈앞에 놓여도 보이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 소리가 있어도 들리지 않으며, 생각이 없으면 냄새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생각이 없으면 무엇을 씹어도 맛을 모른다. 일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보면 이런 이치를 쉽게 알 수 있다.

생각은 인간 삶의 주체

이쯤 되면 '과연 생각이 모든 것을 앞서며 지배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단지 우문(愚問)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한 데카르트의 말은 '생각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까닭에 생각(마음)이 삶의 주체'라고 보는 불교의 유식(唯識)사상에 부분적이거나 접근된 학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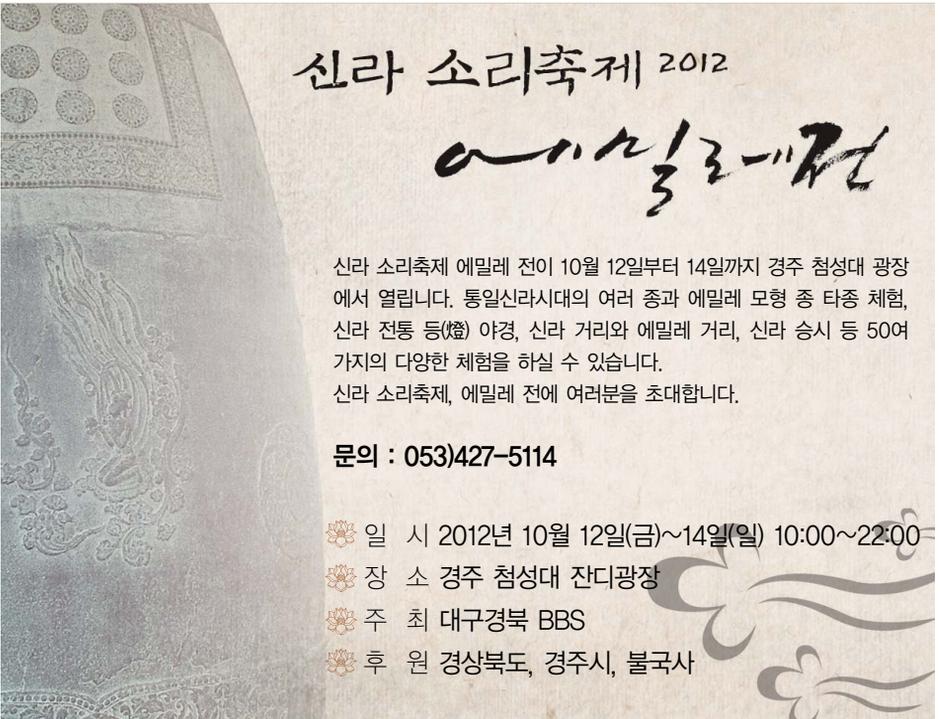
사람이면 누구든지 밥 때가 되면 먹으려 하고, 일하기 위해 움직이고 밤이면 잠을 자기 위해 잠자리에 든다. 이처럼 환경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며 웃고 떠들며 더러는 슬픔과 울적함에 빠지는 것이 사람이다. 이 모두가 사실은 '자기 생각의 조종에 의한 지배 또는 생각이 가지는 명령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것이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생각에 기초하며, 그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한 세기를 냉전시대, 암흑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젖은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다른 예로써 사람들이 흔히 입 속의 혀로서 오감(五感 :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을 맛보고 아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 혀는 신체의 일부로서 맛의 느낌을 전하는 단순한 기관일 뿐, 혀 자체가 오감을 느끼고 아는 작용인 식(識)의 기능을 가진 기관은 아니다. <계속>



신라 소리축제 2012
에밀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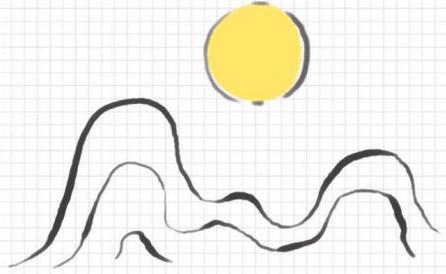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 전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주 첨성대 광장에서 열립니다.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종과 에밀레 모형 종 타종 체험, 신라 전통 등(燈) 야경, 신라 거리와 에밀레 거리, 신라 승시 등 5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 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053)427-5114

일 시 2012년 10월 12일(금)~14일(일) 10:00~22:00
장 소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주 최 대구경북 BBS
후 원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월애삼매(月愛三昧)

묘도스님 / 법왕사 총무



아사세왕이 말하기를, “기마여, 여래 세존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가?”

기마가 대답하였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아들 일곱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한 아들이 병이 났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평등하지만 병난 아들에게 마음이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여래도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에게 평등하지 않음이 없지만 죄 있는 이에게 마음이 치우치게 되는 것이니, 방일한 이는 부처님께서 자비로 염려하시고 방일하지 않는 이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방일하지 않은 이는 누구입니까? 이는 바로 6주(住) 보살입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중생들에 대하여 문벌(種姓)이나 늙고 젊음이나 빈부나 시절(時節)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공교롭거나 내(工巧) 미천하거나 하인이거나 종이거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선심(善心) 있는 중생만을 보시며 선심이 있으면 문득 자비하게 생각하십니다. 대왕이시여, 이 상서는 여래께서 월애삼매에 들어가셔서 놓으시는 삼매인 줄로 아십

시오.”

왕이 곧 물었다.

“어떠한 것을 월애삼매라고 하는가?”

기마가 대답하였다.

“마치 달빛이 모든 우발라꽃을 곱게 피게 하듯이, 월애삼매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피게 하므로 월애삼매라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마치 달빛이 모든 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월애삼매도 그와 같아서 열반의 길을 닦아 익히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므로 월애삼매라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마치 달빛이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형상과 빛이 점점 늘어나듯이, 월애삼매도 그와 같아서 처음 마음을 낸 이로 하여금 선한 근본이 점점 늘게 하며 나아가 대반열반을 구족하게 하므로 월애삼매라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마치 달빛이 16일부터 그믐까지 형상과 빛이 점점 줄어들듯이 월애삼매도 그와 같아서 빛이 비치는 곳마다 모든 번뇌를 점점 줄어 들게 하므로 월애삼매라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한창 무더울 때에 모든 중생이 항상

달빛을 생각하고 달빛이 비치면 찌는 듯하던 더위가 덜하듯이 월애삼매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탐욕과 번뇌의 더위를 덜게 합니다.” <대반열반경 제20권 8. 범행품>

7, 8월의 맹렬했던 무더위를 식혀 줄 청량한 범문입니다. 경문을 읽으면서 그 서늘한 풍경이 홀연히 마음 가운데 파노라마(Panorama)처럼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 경문의 배경에는 부처님 재세시 인도 마갈타국의 빈바사라왕의 아들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마음으로 후회하며, 매우 괴로워한 나머지 온 몸에 종기가 생기니, 악취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갖가지 약으로도 치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심있는 노보살님이 왕에게 부처님을 친견하기 권하니, 왕이 곧 부처님전에 이르러 부끄러움으로 죄를 후회하거늘, 부처님이 월애삼매에 들어가 빛을 놓아 그를 비추니 독창이 곧 나았고, 역시 무거운 죄가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달빛(月光)을 전신으로 흡수해서 그것에 사랑을 담아서 온 몸으로 재발광하는 수행법이 월애삼매입니다. 부처님 법에서는 달이 ‘불성(佛性)’의 극묘한 비유로 자주 등장하고 윤회불식(輪廻不息)을 상징했고 한역 대반열반경은 “달의 본성은 상주불변이니 우주는 하나의 둥근 달(月性常住不變

總是一輪月)”이라고 했습니다. 월애삼매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조선조 4대 문장가의 한 사람인 상촌(象村) 신희(1566~1628)은 “달은 천번을 차고 기울어도 그 본질에 변함이 없다(月到千虧餘本質)”라는 시구를 남겼습니다.

산승도 궁벽진 산사에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 한낮 피약벌에서 밀짚모자 눌러쓰고 밭농사와 나무를 가꾸면서 하루 종일 돌보다가, 저녁에 달빛이 교교(皎皎)할 때는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야산 중턱에 자리잡고 앉아 달빛을 친구 삼아 월광삼매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어머님 품 속 같았고, 부처님 자비가 온 몸에 흠뻑 젖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풀벌레들, 바람에 춤추는 나뭇가지들 어느 것 하나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따듯하기만 했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달빛을 사랑하며
달빛처럼 살고자
달빛과 하나가 된
그런 마음 가운데는
그런 광명 속에서는
중생의 탐욕과 어리석음, 성냄이라는
번뇌열(煩惱熱)이
자리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불경을 아우르는 경율론 삼장(經律論 三藏)

불교에서 삼장은 경(經), 율(律), 논(論)을 총칭하는 말이다.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을 ‘Tri-pitaka’ 이라고 칭한다. ‘pitaka’ 라는 말은 군(群), 분류 또는 ‘포함의 뜻’으로 장(藏)이라고 번역한다. 경전을 편찬하면서 세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을 Tri-pitaka 즉 삼장이라고 한 것이다. 삼장은 경장(經藏, sutra-pitaka), 율장(律藏, vinaya-pitaka), 논장(論藏, abhidharma-pitaka)을 말한다.

모든 불교경전을 세종류로 분류한 것이 삼장

경장(經藏)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모은 것을 말하고, 율장(律藏)은 교단생활의 규칙과 계율을 말한다. 논장(論藏)은 경전을 연구하면서 조직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경장과 율장은 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說)한 것을 모은 것에 비해 논장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논장은 경장이나 율장보다 그 성립 시기가 늦다. 이 삼장 가운데 경장을 경 또는 경전(經典)이라고 한다.

경(經)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수트라(sutra)라고 한다.

수트라의 원뜻은 ‘실, 끈’이라는 뜻으로 당시 사람들은 온갖 아름다운 꽃을 수트라 즉 한 가닥의 실로 엮어서 화환을 만들어 머리를 장식했다고 한다. 이것에 착안하여 꽃에 비유될 정도로 중요하고 훌륭한 짧은 문구를 모아서 엮은 것을 ‘수트라’라고 했다. 이러한 바라문교의 수트라 양식이 불교에도 채용되어 경을 ‘수트라’라고 하게 된 것이다.

경장은 부처님 말씀을 모은 책

불교 초기의 수트라는 석가모니가 말한 교법(教法)을 간단한 형태로 압축해서 정리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스승이 제자에게 구전(口傳)한 것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 같은 형식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수트라는 처음에는 짧은 단문이었으나 차츰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 ‘여시아문(如是我聞: 나는 이같이 들었다)’이라는 문구가 붙으면서 장문(長文)의 경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과 같이 ‘경’ 자가 붙은 모든 것이 경장이다. 현재 한역된 현존본으로 1,500여 권에 달한다고 한다.

율장은 출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규칙

율(律)은 불교도들이 지켜야 할 실제 생활상의 규칙과 교단의 계율규정에 대한 설명집을 일컫는다. 이른바 5계, 10중금계, 48경계, 250계 등의 계법 또는 계율을 말한다. 분량은 한역에 있어서 경장의 5분의 1 정도가 된다.

석가모니는 불제자(佛弟子)들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마다 그 행위의 금지와 벌칙을 규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후일 모여서 율



장(律藏)으로 조직화된 것이다. 율이란 명칭은 BC 3세기에 아소카왕의 법칙(法勅)에 나타나 있으며, 율장은 비교적 많은 부파(部派)에 의해 전해지게 되었다.

율은 불교의 계율이 씌어져 있는 책으로 비나야(毘奈耶, 毘尼 : 산스크리트어 Vinaya의 음역)라고 하며, 또는 조복(調伏)이라고도 한다. 불교의 출가수행자들은 남녀 제각기 집단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단을 승가(僧伽)라고 하며, 이들 승가의 운영 규칙과 수행승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이 바로 율인 것이다.

수행 중인 비구(比丘)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대략 250계가 있으며, 비구니(比丘尼)에 관한 것은 348계 정도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사분율(四分律)이다. 사분율은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계율을 모아 엮은 불교의 경전으로 석가모니가 죽은 지 백 년 뒤에 다르마굽타가 상좌부(上座部)의 근본을 가운데 자기 견해에 맞는 것을 네 번에 걸쳐 모은 책으로 모두 60권이 있다.

계율을 어기면 승가에서 추방

불교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의 모든 조항을 모아 놓은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는 신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해탈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계본(戒本)이라고도 하며, 몸과 입으로 범한 허물을 각 계율 조항을 지켜 따로따로 해탈한다고 하여 별해탈(別解脫)이라고도 한다. 인도의 불교교단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다. 250계는 8절로 나누어져 죄의 경중(輕重)이 정해져 있다. 가장 중한 죄를 바라이(波羅夷)라고 하는데, 정결(貞潔)의 파기, 도적질, 살인, 대망어(大妄語) 등 4조이며, 이 계율을 어기면 승가로부터 추방당한다. 비구니의 조문에는 8조의 바라이가 있다.

율장은 부처님이 제정한 규칙을 모태로 해석이 부가, 정비되어서 불멸(佛滅) 100년 무렵에 성전(聖典)의 형식으로 완성되었으며, 또한 BC 1세기에 책으로 완성되었다고 한다.

율은 강제적인 규칙이지만 수행승(修行僧)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계(戒)라고 말하며 율(律)과 합해서 계율이라고도 한다. 재가신자(在家信者)는 승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율은 없고 오계(五戒)가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해설을 부과한 것이 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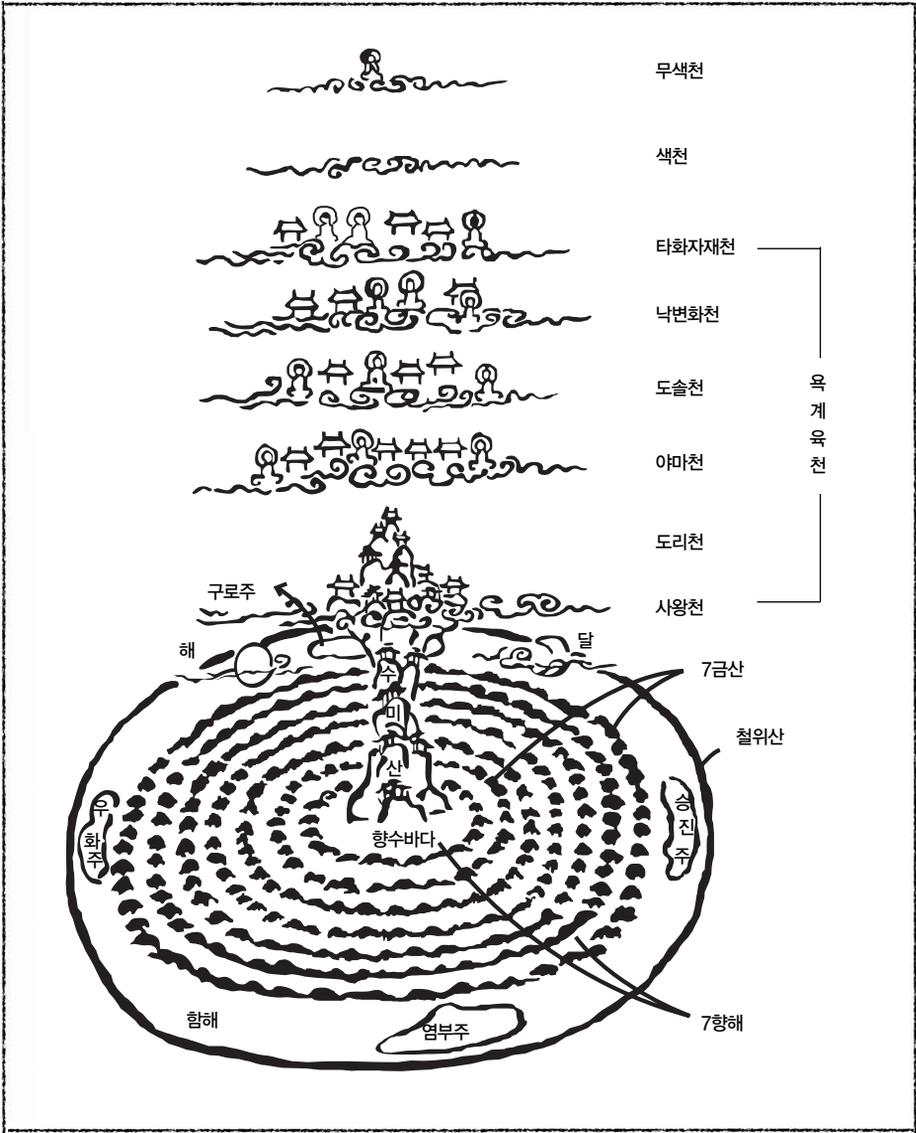
논(論)은 법(法) 즉 부처님이 설한 교법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랫동안 걸쳐 많은 논이 만들어지고 후일에 정비되어 논장(論藏)이 되었다. 경(經), 율(律)은 불타 재세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 논은 불타의 입멸(入滅)후 제자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경뿐만 아니라 율에 대한 연구와 해석도 동시에 행하여 졌으나 이들은 수도 적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율장 속에 포함되어 전해지게 되었다.

논의 내용은 각 부파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는 불교의 교법에 대한 해석, 주석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도출된 설법의 해석에 의거하여 자파(自派)의 교리화설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소승논서(小乘論書)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저술로는 이부종륜론(異部宗輪論), 발지론(發智論), 대비바사론(對毘婆沙論), 구사론(俱舍論) 등이 있으며 대승논서(大乘論書)로는 중론(中論), 대지도론(大智度論),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섭대승론(攝大乘論),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등이 있다.

우주의 중심, 수미산

편집실



우리나라의 사찰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수미산 우주론에 바탕을 두고 건축되었다. 그래서 절 입구에는 개울을 건너는 다리(일주문(一柱門), 그리고 천왕문(天王門)이 있고, 앞으로 나있는 길을 따라가면 탑과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大雄殿)에 이르는데 사찰과 지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찰 순례에 더 붙어 수미산(須彌山) 등정을 시작하게 된다.

불교의 수미산 우주론에서 우주를 만드는 것은 함께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의 업(業). 즉, 업력(業力)이다.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이 세계는 풍륜(風輪)·수륜(水輪)·금륜(金輪)의 삼륜(三輪)이 만들어 진다.

중생들의 업력이 바람과 같은 거대한 기류를 형성하여 소용돌이 치는데 이를 풍륜이라 한다. 풍륜은 태풍이나 나선형 우주와 같이 회전하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풍륜의 위쪽에는 수증기가 응집되어 만들어진 빗방울이 모인 원시 바다와 같은 수륜이 존재한다. 그 위로 마치 뜨거운 우유가 식으면 얇은 유막이 생기듯이 단단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을 금륜이라 한다. 금륜에서 단단한 부분이 점차 중앙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데 이러한 중앙에 있는 존재가 바로 수미산이다.

그리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심원(同心圓) 구조의 산과 바다가 생기는데 이를 구산팔해(九山八海)라고 한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중앙은 밀도가 높고 좋은 질료로 된 세계이며, 주변으로 갈수록 거친 질료의 하열(下劣)한 세계가 된다. 바다 역시 중앙은 팔공덕수(八公德水)라는 좋은 물로 되어 있지만 바깥쪽은 바닷물과 같은 소금물인 염해로 되어 있다.

수미산의 주위로는 향수해(香水海)라는 바다가 해자(垓字)처럼 둘러싸고 있다. 이 향수해는 성(聖)과 속(俗)을 분할하는 공간 분할의 바다로 그 폭이 4만 유순(由旬)이나 되어 하열(下劣)한 존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성산(聖山)의 위엄을 가진다.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축산으로 수직적 세계와 수평적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직적 세계는 천신(天神)들이 살고 있는 천상세계가 층층이 펼쳐져 존재한다. 천상세계는 사왕천과 도리천을 포함한 욕계(欲界) 6천(天)과 색계(色界) 18천(天)과 무색계(無色界) 4천(天)의 총 28천(天)이다. 28천(天) 중에 지상에 있는 지거천은 사왕천과 도리천 2곳이고, 하늘에 있는 공거천은 26곳이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세계에는 동쪽에 동승신주(東勝身洲), 서쪽에 남섬부주(南瞻部洲), 서쪽에 서우화주(西牛貨洲), 북쪽에 북구로주(北俱盧洲)의 4개의 대륙이 존재한다. 동승신주에는 육체적으로 몸짱과 얼짱 같이 잘 생긴 사람들이 사는 곳이며 남섬부주에는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서우화주에는 소를 화폐로 삼아 물물교환하는 곳이다. 북구로주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장수를 누린다고 한다.

불교의 우주론에서 말하는 수미산은 현실의 산이 아니기 때문에 산의 형태가 매우 특이하다. 『구사론』에서는 한 변이 8만 유순인 정육면체라고 하고, 『누탄경』 관련 전적들은 8만4천 유순 높이의 첨성대와 같은 형태를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첨성대가 수미산을 묘사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수미산을 어떤 형태라고 규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산의 중턱에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사왕천이 있고 그 주변에 해

와 달이 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산 정상이 정방형의 평면공간이며 이곳에 제석천과 32명의 천신들이 살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이 수미산 정상을 도리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도리는 제석천과 32천신을 합한 숫자 33이라는 의미이다.

가람 배치의 밑그림이 되는 것은 바로 불교의 수미산 우주론이다. 사찰은 수미산 우주론을 설계도로 해서 수미산 최하단에 일주문을 세우고 부처님이 계시는 성역이 시작됨을 알리고 중턱에 천왕문을 세워서 불법을 수호하고 산 정상의 입구에 해탈문을 세워서 부처님이 계신 신성함 곳임을 또 한 번 알리며, 수미산 정상인 도리천안에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을 지었다.

사찰은 이런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 사찰의 상징에 담겨있는 불교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미산 우주론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수미산과 사찰의 구조

구 분	의 미
넋돌과 다리	수미산 우주론에서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향수해(香水海)를 상징
일주문(一柱門)	수미산의 최하단으로 성역(聖域)의 시작점을 상징함
천왕문(天王門)	수미산의 중턱으로 동(지국천왕), 남(증장천왕), 서(광목천왕), 북(다문천왕)의 남향 일향성 관점으로 재편하여 상징화함
해탈문(解脫門)	수미산 정상의 방형공간에 대한 공간분할을 상징함
대웅전(大雄殿)	수미산정인 도리천 안의 선견성(善見城)을 상징함
강당(講堂)	선견성 주위의 부속건물을 상징함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이 품은 천년고찰, 도갑사



- ◀ 해탈문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주심포 형식의 건물로 건축 양식이 독특해 국보 제50호로 지정되어 있다.
- ◀◀ 월출산 도갑사를 에워싸고 있는 월출산 전경. 산 전체가 깎아지른 기암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 있어 주변을 압도하는 위엄을 갖추고 있다.



▲ 대웅보전 2009년 새로 중창한 도갑사 대웅전. 정면 5칸, 측면 4칸, 외부 중층, 내부 통층의 다포식 팔작지붕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외양을 자랑하고 있다.

산세가 빼어나고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국립공원 월출산. 그 남쪽 넓은 산자락에 자리잡은 도갑사는 역대 고승대덕들이 주석하면서 깨달음의 참다운 이치를 널리 펼친 천년고찰이다.

전남 영암군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도갑사는 신라 4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이신 도선(道詵) 국사가 신라말 현강왕 6년에 문수사터에 세웠다고 한다.

도갑사는 고려 때 번성하였다고 하는데 고려시대 자료는 거의 다 유실되어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조선 이후의 발자취는 소상히 남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원의 중창은 1456년(세조 2년) 수미(守眉)왕사에 의해서였다.

수미왕사는 어명을 받들어 국가적 지원으로 966칸에 달하는 당우와 전각을 세웠고, 부속 암자만 해도 12개가 있었다고 한다. 성종 때(1473년)에도 중수한 적이 있고 1653년(효종 4년)에는 ‘도선수미비’와 ‘월출산도갑사석교 중창비’가 세워졌는데, 당시 영의정과 형조판서 등이 비문을 짓고 글씨를 쓴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도갑사의 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776년(영조 52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하지만 정유재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유실되었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도 일제시대와 6·25전란을 겪으면서 대부분 소실되었다. 더구나 1977년 참배객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1981년 대웅보전 복원을 시작으로

차츰 옛 가람의 복원불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갑사에는 해탈문(국보 제50호)과 마애여래좌상(국보 제144호),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9호), 문수·보현동자상(보물 제1134호), 5층 석탑(보물 제1433호), 그리고 도선수미비(보물 제1395호) 등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1473년(성종 4년)에 중건된 단층 맞배지붕의 해탈문은 조선초기의 목조건축물로 특이한 집의 생김새가 눈길을 끈다. 금강역사상과 코끼리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상, 사자를 탄 보현동자상이 봉안되어 있다.

대웅보전 앞에는 수미왕사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52호)와 고려시대의 5층석탑이 고즈넉히 서 있다. 수미왕사비는 1629년에 만들기 시작하여 1633년(인조 11년)에 완공된 비로 세조 때의 승려인 수미왕사의 활동과 내력을 기록한 비로서 귀부와 비신, 이수가 모두 잘 남아 있다.

도갑사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미륵전의 석조여래좌상이다. 보통 미륵전에는 미륵불이 봉안되는데 도갑사의 미륵전에는 항마촉지인을 한 석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특히 광



▲ 일주문 앞면에는 월출산 도갑사란 현판이 걸려 있고 뒷면에는 국중제일선종대찰이란 행서체 현판이 걸려 있다.

배와 불신을 한 돌에 조각되어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조각의 윤곽이 섬세하여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도선수미비(道詔守眉碑)는 도갑사를 창건한 도선국사와 중창한 수미선사의 행적을 기록한 비이다. 이 비는 높이가 무려 4.8m에 달한다. 아주 커다란 거북이가 여의주를 물고 이 비석을 지고 있다. 이 비석이 완공된 것은 1653년(효종 4년)이었지만 만드는데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도갑사 순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경봉 아래 북쪽 암벽에 조각되어 있는 마에여래좌상을 보는 것이다. 도갑사와는 관계 없는 불상이지만, 커다란 바위 벽에 조각된 높이 7m의 마에여래좌상은 거대한 바위를 오목하게 파고 들어가 광배와 두광까지 선명하게 조각된 걸작이다.



▲ 5층석탑 고려시대 석탑으로 대웅전 앞에 있다. 조각 및 건축수법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형미가 뛰어난 작품이다. 보물 제1433호로 지정되어 있다.

도갑사의 산내암자 중에 하나인 상견성암(上見性庵)에 있는 바위에 '천 개의 바위봉우리는 서로 빼어남을 견주고, 만 개의 구렁은 그 흐름을 다룬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월출산은 해발 809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천황봉을 주봉으로 구정봉, 사자봉, 도갑봉, 주지봉 등이 동에서 서로 하나의 작은 산맥을 형성하면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북쪽의 용추폭포, 동쪽의 구절폭포, 남쪽의 금경포대 등이 절경을 이룬다. 1978년에 천황봉으로 오르는 산 중턱에 길이 51m, 너비 0.6m의 구름다리를 놓았는데, 절벽 높이가 무려 120m나 된다.

도갑사 가는 길

승용차 대구에서 구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강진에서 내려 국도 13번을 따라 가면 된다. | **고속버스** 대구 ↔ 광주 (매 30분, 소요시간 3시간 30분) | **직행버스** 광주 ↔ 영암 (매 10분, 소요시간 1시간 20분) / 목포 ↔ 영암 (매 20분, 소요시간 50분) | **도갑사행 군내버스** 오전 8시 10분, 9시 40분, 11시 30분 / 오후 1시 15분, 3시 40분, 5시 25분, 7시 30분

법왕사 소식

9월 7일부터 제23회 백고좌법회 열려



제23회 백고좌법회가 오는 9월 7일 입재하여 12월 15일까지 100일간 계속됩니다. 이번 백고좌법회에서는 불교경전 전반을 아우르는 '경율론 삼장 대법회'로 전국의 고승대덕 100여분을 모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간 법회를 열게 됩니다. 이번 법회 중간에는 인천 용화선원에 주석하고 계신 송담 큰스님 친견 화두, 불명 수지법회와 법왕사 회주이셨던 원공당 정무 큰스님 1주기 추모법회도 열릴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9월 6일 백고좌 전야 산사음악회 개최



오는 9월 7일 제23회 백고좌법회를 앞두고 그 전야인 9월 6일 오후 7시에 법왕사 복지관 3층 큰법당에서 불자가수 김태곤과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인 정무시 선생의 독창, 피리 연주자 김아람씨 등 많은 예술인들이 출연한 가운데 열립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불자 국회의원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초청, 토크쇼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옛 법당에 칠성탱화 봉안



법왕사에서는 8월 24일 칠석에 많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옛 법당에 칠성탱화를 봉안하였습니다. 칠성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으로 불교에 도입돼 수명과 재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칠성의 주존불인 치성광여래(熾星光如來)는 천재지변과 질병을 다스리며 재앙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식 낳기를 원하는 사람이 불공을 올렸고, 또 아이의 수명을 관장하고 재물과 재능을 준다고 하니 앞으로 많은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가을 경로잔치 열린다



법왕사 가을 경로잔치가 오는 10월 13일(토) 법왕사 광장에서 지역의 어르신 3천여분을 모신 가운데 열립니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흥겨운 공연 한마당을 베푸는 경로잔치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홍보와 동참 바랍니다.

시민 참선방 개원, 20여 불자 정진중



옛 법당 1층에 마련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참선방에서 수련하는 불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가량 자유롭게 참선할 수 있는 공간인 참선방에는 현재 20여 명의 불자들이 매일 정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참선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수행해 볼만한 수행법으로 많은 불자님들의 이용 바랍니다.

우란분절, 백중 49재 6재까지 회향



지난 7월 1일 입재한 백중 영가천도 49재가 8월 25일 제육재까지 회향하였습니다. 법회에는 매년 100여분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선망조상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하며 2013학년도 대입기도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백중 천도재는 매주 토요일에 봉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 회향 예정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조상과 선망부모님의 영가를 천도하여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불보살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2013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 봉행중



2013학년도 대입수능 100일 기도가 8월 1일 입재하여 수능일인 1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봉행합니다. 수행생을 둔 불자님들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정성과 불보살님의 가피로 자녀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당 뒤편 농원에 온갖 과일, 작물이 풍작



옛 법당 뒤편에 조성한 100여평의 농장에 고추와 오이, 가지, 포도 등이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한평, 한평 개간해서 조성한 농장에 범우사 법우님들의 공양에 올라갈 채소와 과일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어 불심인 양 풍요롭습니다.

법왕사 게시판

● 새법우 명단

달서구 금건수 김기욱 금태현 금지현
장경숙
중 구 김정석 신동애 김효정 안상태
안성민
수성구 임정호 신숙 박병문 홍수흠
북 구 이상훈
시 외 권기욱

●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亡엄부 창녕후인 조공진근 영가(조수민 복위)
亡엄부 영월후인 엄공진섭 영가(이진호 복위)
亡엄부 영천후인 이소해원 영가(이점례 복위)
亡엄부 진주후인 강공태수 영가(강문종 복위)

● 원불봉안 하신 분

3314 ㄸ흥태수영가(지장보살) 3315 김중희(지장보살)
3316 권선오(지장보살)

● 2013년 수능기도 축원접수 하신 분

김주혁 김희성 금지현 홍아름 김성엽 김신영

● 새롭게 산신인등 모신 분

474 홍성규

● 법당 일년등 모신 분

금건수 박재현 정낙진

● 범종 불사 모신 분

안준영 이주애 안효창 강경구 박영승 신중호
지주연

● 설판 위패축원

김하균

● 설판 49일기도

이영석

● 봉정암 순례 수능특별기도

박준용 박준범 김주혁 김기춘

● 100일기도

박준범 양혜진 정민경 서미희 서미경 서민관
이선재 김옥희 이상훈

● 사업기도

파라다이스한증막(정현숙)

● 칠성단 불기 불사

박정묵 조정숙

● 본법당 지장탱화 조성 불사 동참자

서승희 이장수 영가 김해용 영가

● 본법당 칠성탱화 조성 불사 동참자

이정상 전옥남 이육진 이도윤 이나경 이승엽
이승아 신구자 정성욱 이명순 정진욱 이상경
정혜인 박경영 유명옥 박진오 박인정 양봉훈
양혜영 양지영 양혜진 양봉률 조철제 박정숙
조성민 손정열 최서원성 최재훈 최윤재 김정호
김수연 박해진 백월순 박종성 나은정 강호진
박연정 강태우 강지연 박경훈 박수정 박도현
김무성 박경원 김도영 조복래 조현갑 조정훈
조은우 조민규 최영곤 권숙자 최은정 류윤만
이경숙 류희승 류주연 권민서 강현성 서경아
강경근 서진호 서명진 김태영 김우영 김휘성
정 현 이영우 이정순 이재원 안선희 이효원
윤정민 김이호 이인정 권혁일 이점예 권도형
권지현 김기춘 신정욱 김중수 김영현 김인조
박소영 서주석 허분선 백대행심 이준호 김임태
김기수 사공소옥 백보현행 김하균 김익균 류승삼
최자윤 류수연 류주원 이세정 정시영 정영미

법왕사 계시판

정국영 조미숙 정 돈 김은진 박정환 박세환
 신명균 구실상화 신승훈 신현수 신창희 강대범
 이승재 장용선 이준호 박재희 김성훈 최태희
 박동근 황미선 박준범 박준용 이상민 이보민
 김원형 김입분 김창희 김민희 권호택 함지훈
 구미영 함주연 고영자 이승현 안준영 이주애
 안효창 심규암 권영숙 심혜정 심소미 이재복
 정미화 이승연 이승민 김성훈 이우열 이희경
 이정란 문선재 여택동 여준엽 여영동 여지원
 김정석 김경란 정나영 권주희 한재웅 김영순
 김치영 박진호 최효영 정금순 최동철 최윤정
 최 솔 지주연 이영석 남현우 조기수 박대희
 정효교 정의윤 정정교 정의현 백승현 백승열
 백인혁 백인수 강석윤 강동한 오진환 김정순
 오창건 김은주 김완수 오정임 오민정 권순빈
 권나영 권연주 김현숙 김창용 김영훈 김은지
 서민정 서영성 서정현 박은정 이준민 남기욱
 서수민 박주연 박준혁 서영덕 박정숙 이재학
 한현식 한혁식 유종건 최분규 유우석 유민석
 김희동 남창형 남학형 최정이 전병혁 이영소
 전성호 전지윤 이상조 이상석 박종환 이정자
 이현우 이성은 이동연 이동하 이나영 김상수
 이지송 박재분 윤수자 강동우 오경륜 오수린
 오채린 오경환 서민영 손권영 나영체 이관음행
 나경빈 나주민 한지윤 한승희 조지혜 조동빈
 장샘찬 최근주 정점순 최봉근 홍성은 최선우
 최유진 서충혈 최옥자 서영호 서영진 공나원
 공경원 최남구 박범국 홍석진 공대우 송화자
 이종희 황래환 황공주 하은정 하재형 김희우
 유성호 유나경 신범해 신지인 윤재웅 김교희
 김지열 배수현 이지우 이정운 이윤지 류승수
 신격기 신종백 신종태 신호정 오경덕화 안명희
 김기수 최규철 이창수 박성택 박영숙 강리정

인 등 김명숙 1만5천원 강춘희 2만원
 이숙희 2만원 전재호 1만원
 이숙희 1만5천원 장옥주 1만원
 노경정 2만원 홍경숙 1만원
 황국희 2만5천원 정순희 2만원
 류윤희 1만5천원 신정욱 4만5천원
 신인숙 5천원 서상태 2만원
 오창혁 1만원 한천숙 1만원
 김영희 2만원 전재필 5천원
 이승일 2만원
초하루, 축원 정연이 2만원 송애자 2만원
 진영덕 2만5천원 전태일 4만원
 나형진 2만원 김지연 3만원
 손향숙 2만원 이영희 4만원
 김연자 1만원 박정순 2만원
 송순분 2만원 김수라 3만원
108석등 현미숙 3만원 문영자 2만원
 이창형 3만원
원불봉안 김점숙 2만원 김금순 4만5천원
 이종매 3만원 오지현 4만원
 차미희 3만원 이호진 1만원
 남경순 2만원 오현아 2만원
 최유자 3만원 심향숙 3만원
 양수한 4만원 이현숙 4만원
 백미경 1만원 백동근 1만원
 백미숙 1만원 김옥자 1만원
일 년 등 채영주 2만원
산신인등 정영미 5천원 김애경 1만원
 양미경 5천원 차상근 5천원
대 불 조경희 5만원
평생위패 고연숙 10만원
해오름불사 남옥연 10만원
기 타 이관수 2만원 정영석 5만원
 주석순 5천원 김재현 1만원
 전광환 1만원 심영선 1만5천원
 성유주 5천원

CMS접수하신 분(7/10~8/17)

한평불사 서필희 1만원 김의환 2만원
 백춘자 5만원

법왕사 게시판

● 감사드립니다

- ◎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홍공덕심
- ◎ 물품, 공양물
(주)동원토건 양창수 사장(전자시계 기증)
유성종(소나무) 이분근(유과) 박경훈 이현우
허정현 일진행 구실상화(공기청정기, 믹서)
김순태(표고버섯) 노수정(표고버섯)
- ◎ 백종 공양미
양혜진(40kg) 최태희(40kg) 정광춘(40kg)
김기호 정영미 윤다경 황미선 정광춘
김상수 이지승 강소남 백대행심 김불심행
양봉훈 김정길 신재용 박동근 백순자
백영자 조태금 양혜진 양봉훈 김정길
신재용 진영덕 신인철 정효교 정의운
이정상 여택동 정영미 오견덕화 권무길
- ◎ 과일공양
이정상(9box) 정시영 양봉훈 권혁만
권마하연 김옥희 권계자 류윤만 정경교
- ◎ 떡공양
김영웅 심규암 구실상화 김정석 배해동
이재학 김상한 서미희 정민우 손정열
김두성 이보민 이세정 권계자 류윤만
강정선 양봉훈 양혜진 김상수 심혜정
박해진 이세정 김기춘

● 불사 도움 주신 분

팔보회 일동 20만원 권계자 108통장 회향

● 사보 도움 주신 분

- 권종오 1,000부 무명 2,500부 오정순 300부
- 김성훈 1,000부 신창진 2,000부 서원성 100부
- 오경자 100부 홍명진 300부 삼우외식산업 100부
- 유연주 200부 김오현 500부 권혜경 300부
- 심경스님 300부 권오연 500부 김재훈 200부
- 토담식당 50부 묘장엄 100부 권미경 300부
- 최옥남 500부 오정순 300부 박임순 100부
- 박말순 100부 박영탁 100부 분남 200부
- 조영간 200부 삼육회 500부 유씨튜디오 200부
- 박재관 300부 김남두 100부 류홍열 노기주 300부
- 임지택 40부 박병선 20부

● 왕생극락하옵소서

- ◎ 조수민 법우님의 언엄부후인 창녕 조소진근 영가님의 초재가 8월 8일에 있었습니다.
- ◎ 이진호 법우님의 언자모유인 해평 김씨정식 영가님의 막재가 8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김형섭 법우님의 누님유인 김해 김씨지영 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이창수 법우님의 허형님후인 성산 이공장수 영가님의 막재가 8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엄준원 법우님의 언엄부후인 영월 엄공진섭 영가님의 막재가 8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김영권 법우님의 언엄부후인 김녕 김공성호 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제23회 백고좌(31일차) 이동법회 및 송담스님 친견 및 화두·불명 수지법회 봉행

- ☸ 법 회 화두, 불명, 십선계 수계법회
- ☸ 일 시 2012년 10월 7일(일)
- ☸ 출 발 오전 7시 법왕사 주차장
- ☸ 장 소 인천 용화사

해오름 소식

어르신 생신잔치



이만구 어르신이 생신을 맞이하여 직원과 어르신들이 함께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생신축하 노래와 촛불끄기 및 폭죽을 터트리고 케익을 절단하여 갖가지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드셨습니다. 매달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원 식중독교육



여름철 어르신과 직원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식중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간호팀장이 구청에서 4시간의 교육을 받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잘 정리된 교육교재와 세밀한 설명에 직원들은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38회 법왕사 가을 경로잔치

제38회 법왕사 가을 경로잔치가 오는 10월 13일 법왕사 광장에서 열립니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흥겨운 공연 한마당을 베푸는 경로잔치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부 기도 10시 30분 ~ 12시 **2부 점심공양** 12시 ~1시 **3부 공연** 1시~3시

일 시 2556년 10월 13일(토)
장 소 법왕사 광장
초청인원 5천명

물품 보시 받습니다

구 분	수 량
우 유	5,000개
팩 소 주	5,000개
음 료 수	5,000개
사 과	5,000개
요구르트	5,000개
사 탕	5,000개
빵	5,000개
수 건	5,000개
쇼핑가방	5,000개



※ 쌀, 떡, 일체 모든 대중공양 접수 받습니다. / 당일 자원봉사하실 분도 접수 받습니다.(현재 접수중) / 당일 공연에 무료 출연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오름 게시판

후원하신 분

백복순 100만원 장익분 2만원 이준호 2만원
무기명 138,390원 이명분 옥창방지용 매트
신세계연합의원 수박 2통
유순무 보행기, 지팡이

요양원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금액과 물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금 사용내역

- 목욕침대 구입 780,000원
- 어르신 진료출장비 43,500원
- 의료용품 구입 68,700원

8월 새로 입소하신 어르신

김춘성님(여)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9월 특별프로그램 내용

- ⊙ 법왕사 백고좌법회 전야제 참석(입소어르신)
- ⊙ 백고좌법회 참석
- ⊙ 생신잔치(매월 1회)
- ⊙ 어르신과 함께 나들이(시장보기 및 점심식사)

봉사활동 하신 분

김기원 영남대학교(36시간)
김다은 경북대학교(36시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셔서 어르신들도 기뻐고 저희들도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원입소 안내

⊙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정원 50명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전화를 주시면 입소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53)766-5767)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정기후원 은행을 방문하셔서 위 계좌로 자동이체신청 월 5,000원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이용을 바랍니다.

가창방면에서 신천좌안도로를 이용해 오시는 법우님들은 **상동교**에서 **유턴**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 물 놀 이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제23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법회(百高座大法會)

법왕사에서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제23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대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 명 **중심문도회(대표 : 회주) 심경 스님**

입 재 9월 7일

회 향 12월 15일

시 간 매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상 주지스님께서 108배 2회를 집전합니다.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천도 49재에 올랄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1일차

9월 7일
입재법문

도문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31일차

10월 7일
이동법회

송담스님
인천 용화사



●41일차

10월 17일
주모법회

원공당
정무대종사



●99일차

12월 14일
보살계 수계법문

종진스님
해인사 울주

제23회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오는 9월 7일 제23회 백고좌법회를 앞두고 그 전야인 9월 6일 오후 7시에 법왕사 복지관 3층 큰법당에서 김태곤, 우담바라 합창단, 정무시, 금강사물단, 김아람 외 인기가수 초청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불자 국회의원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초청, 토크쇼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 시 불기 2556년(2012년) 9월 6일 오후 7시

장 소 법왕사 복지관 3층 큰법당

출 연 김태곤, 우담바라 합창단, 정무시, 금강사물단, 김아람, 황혜진, 박성경, 김수경, 특별출연 주호영(국회의원)

사 회 이수찬(대구마하이주민센터 소장)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T. (053)766-3747 F. (053)767-6095